지식경제부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	**보도자료**	함께하는 공정사회! 더 큰 희망 대한민국 http://www.mke.go.kr http://www.koreapost.kr

'11.10.28(금)조간 (인터넷·방송 10.27(목) 11시)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문의 : 우정사업본부 조용민 보험사업팀장(02-2195-1630), 김광석 사무관(1648)

다문화사회 글짓기 공모전 대상

"태국, 베트남 등 국가 언어 배움 기회 가져야"

조연지양 논설문 '다문화사회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것은?' 대상 차지

'다른 나라의 언어에 대한 관심과 습득은 다문화사회에서 필요한 공존과 소통의 구성 요소를 만족할 수 있는 해답이다.'

이웃에 사는 베트남 아주머니의 떠드는 말소리를 듣고 다문화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다른 나라의 언어를 배움의 기회를 가져야한다고 쓴 중학생 논설문이 전국 초중고생이 응모한 글짓기대회에서 대상에 선정됐다. 주인공은 서울에 사는 조연지양(대원국제중1).

조연지양은 27일 서울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우정사업본부 '2011 다문화사회 글짓기 공모전' 시상식에서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언어 습득'이라는 논설문으로 대상을 수상했다.

다문화사회 글짓기 공모전은 우정사업본부가 다인종·다문화가 공존하는 사회에서 살아갈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열린 마음으로 다양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대회이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한국사회의 다문화에 대해 교수들과 수상자들이 경험과 의견을 나누고 그룹 토론도 이뤄졌다.

대상을 차지한 조연지양은 '이제는 한국사람이 아닌 타국사람들과 결혼하는 사람들의 수가 증가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언어의 장벽을 극복하지 못한 부모로 인해 자녀가 집단 따돌림을 당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틀에 박힌 사고, 편견, 습관이 장벽을 만들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연지양은 따라서 '단일 민족주의를 넘어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개방적인 다문화 사회를 지향해야 한다.'고 말하고 '영어나 중국어에서 탈피해 태국, 베트남 등의 언어에 대한 배움의 기회를 갖도록 해야겠다.'고 강조했다.

김명룡 우정사업본부장은 "우리사회에서 다문화라는 말은 더 이상 생소한 단어가 아니다."라면서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 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우체국이 좋은 이웃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우정사업본부는 2008년부터 한국여성재단과 손잡고 다문화가정의 가정폭력 예방과 진정한 다문화 사회 조성을 위한 '다문화가족 안전망 구축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도 1억 원을 지원하여 사업을 적극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 사진은 시상식이 끝나는대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붙임 : 조연지양 논설문 전문

주제: 다문화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언어 습득

여름방학에 책상에 앉아 선풍기를 틀어 놓고 공부를 하다보면 창문을 통해 들려오는 소리가 더위와 함께 나를 짜증나게 했다.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시집을 온 외국인의 아주머니의 목소리 때문이었다. 한국은 2007년 8월에 체류외국인의 수가 처음으로 100만 명을 돌파함으로써 이 땅에 사는 사람의 2% 이상이 외국출신인 나라가 되었다. 2005년 에는 한국에서 있었던 결혼의 13.6%가 국제결혼으로 여덟 명 중에 한 사람이 외국인 배우자를 맞이했고, 코시안(Kosian)이란 한국인과 아시아인 사이에서 태어난 2세를 말하는 말이 대중화가 되어가는 것을 보아 '혼혈'아이들이 증가 하는 추세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점점 국제화 시대에 접어들어 지구촌이라 불리 우는 이 시대에 이제는 '한국'사람이 아닌 타국(외국인)사람들과 결혼하는 사람들의 수가 증가 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하지만 다문화사회의 가장 큰 문제 또한 다문화 가정의 숫자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취학아동에 대한 집단 따돌림의 형상이나 언어의 장벽을 극복하지 못한 부모로 인해 당하는 소외감을 다문화사회라면 따뜻하게 보듬어 주어야 하지만 현실은 다문화사회의 변화에 대한 우리나라 사람들의 틀에 박힌 사고. 편견. 습관들로 장벽을 만들고 있다. 나 또한 동남아권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보면 어느 정도는 무시하는 부분이 없지 않다.

한국은 전 세계 국가들 가운데 아이슬란드와 함께 유일하게 단일 문화를 고수하고 있는 국가로 분류되는 '한 핏줄. 한 민족. 한 문화'개념이 강한 대표적인 나라인데 그런 긍지는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로 부터 몇 차례 경고를 받았을 정도로 강한 의식을 가지고 있다. 개인적으로 다문화사회가 어떤 사회 인지 인식 되는 부분이 없다. 어느 날 거리에 지나다니는 외국인이 많아 졌음을 인식 할 뿐 특별하게 다가오는 느낌은 없었다. 그런데 다문화사회과 이런 사회라고 규정짓는 것은 하나가 아니라 둘이라는 동거를 의미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했다. 하나의 제도화에 두 가지 신념이 존재하고 이를 수용해야 하는 집단의식의 변화가 이루어 졌을 때 다문화사회 인 것 같다. 다문화사회에 대해 생각하는 것은 공존과 소통의 틀이 마련되어 지는 것으로 사회를 이루고 있는 구성원들 간의 배려의 마음이 함께 할 때 모두가 행복한 다문화사회를 유지하고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공존과 소통의 방법을 찾아내는 것은 다문화사회 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안고 있는 공통의 문제의 답을 찾는 것으로 보아도 될 것 같다.

우리나라 사회가 다문화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게 된 이유는 무엇보다 개방화, 국제화, 세계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외국인의 급격한 국내 유입으로 다인종, 다민족,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미녀들의 수다'와 같은 TV 프로그램 이외에도 외국인을 다룬 영상물이 넘쳐나고 있고, 그들을 삶을 조망하는 다큐멘터리나 시사 프로그램도 자주 보게 된다. 이처럼 급변하고 있는 우리나라 다문화 사회의 특징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 사회가 다문화화 되어 감에 따라 청소년 세대인 우리가 전통문화의 보존과 문화적 우수성을 인정하면서 다문화 시대를 맞이하여 열린 마음으로 다양한 문화를 긍정적으로 보아야 한다. 언어적 소통의 한계와 한국 문화에 쉽게 적응하기 곤란한 개인적인 적응의 문제는 개인에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족 관계와 생활의 문제에 영향을 미치고 무엇보다 외국인에게는 자녀 양육과 교육의 문제와도 직결된다. 다문화 가정의 자녀의 학교부적응 문제는 또 다른 사회문제로 연결된다. 무엇보다 외국인이 당하는 편견과 차별이라는 사회적 적응 문제는 소외와 갈등이라는 측면을 넘어 인권의 차원으로 보아야 된다. 우리나라의 다문화 사회의 모습은 앞으로 더욱 이주민이 증가하기에 단일 민족주의를 넘어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개방적인 다문화 사회를 지향해야 한다. 다문화 사회를 향해 단지 구호만이 아니라 진정으로 함께 할 수 있는 행동의 실천을 통해 여러 인종과 문화가 우리 사회에서 동등하게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우리 자신의 정체성과 문화를 탈 인종주의적인 방식으로 재구성하겠다는 단호한 의지, 그리고 차이와 차별, 고통과 풍요로움에 같이 느끼고 나누어야 한다. 그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질문들의 답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주민과 소수 문화 주체들에게는 어떤 역할이 적극적으로 요청되어야만 하는 것일까?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것들이 다른 나라로 수출되고 있다는 뉴스를 보면서 국경의 벽은 형식적인 것 일뿐 세계 여러 나라는 이웃처럼 활발하게 상호작용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제는 단일민족이라는 울타리 안에 머무르지 않고 세계화가 진행 되고 있음은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는 능력, 나누는 마음을 가진 세계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길러 보다 나은 모습으로 자기 주변의 세계를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 다문화 사회에서 청소년들이 실천해야 할 행동이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의 청소년들이 자신의 삶속에서 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의 사람들과 만남 속에서 더불어 함께하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

여러 측면에서 변화의 속도가 빠른 한국은 다문화사회로의 진입 속도도 빨랐고 다문화주의의 사회적 수용 속도도 남다르게 빨랐다. 그러나 다문화사회에 대한 현재의 높은 합의 수준은 긴 시간 동안에 걸친 사회적 조정의 결과로 나타났다고 하기 보다는 별 관심이 없는 사이에 국가가 선포하고 끌고 나간 결과라고 본다. 앞으로 더욱 다양한 사람들과 더욱 많은 접촉을 할 수밖에 없는 한국 사회가 과연 미래에도 별 탈 없이 평화로운 다문화사회를 지속할 수 있을 것인가. 다문화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국가는 이념 교육의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만들어 국민들의 의식을 변화 시키는 교육을 꾸준히 진행해야 한다. 호주의 경우 다문화사회 때문에 손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문화사회를 반대하고 다문화사회로 가는 흐름을 거부한다. 캐나다나 미국에서도 다문화주의는 각 집단이 이해의 합의를 갖지 못함으로써 오히려 사회의 통합을 방해하기 때문에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세력들이 꾸준히 등장하고 있다. 심지어 프랑스의 극우 정당들은 '프랑스인을 위한 프랑스'를 외치며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은 결코 동화될 수 없으므로 프랑스를 떠나라고 외치고 있다. 그런데 이런 주장에 동조하는 사람들은 백인, 하층노동자가 많다고 한다. 그들은 경기가 나빠져서 해고당하면 이민자들이 일자리를 뺏어갔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면서 이민자 추방을 외치는 인종차별적인 구호에 열광하는 모습은 TV를 통해 보게 된다.

만약 한국 사회에 더 많은 이주민이 들어오게 되고 내국인과 본격적으로 일자리 경쟁을 하게 되는 상황이 오더라도 우리는 다문화사회를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세계화의 물결이 사회적 약자들에게 불리하게 작동해서 삶이 힘들어질 때에도 나는 배고파도 좋으니 국제결혼해서 온 신부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하라고 웃으며 말할 수 있을까? 쉽지 않은 질문이다. 이주민을 단지 외국에서 온 사람이라는 측면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이주민은 내국인과는 다른 존재가 된다. 사회의 모든 구성원

들은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만 하고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 피부색이 무엇이건 간에, 어느 나라에서 태어났건 간에 우리는 권리를 함께 누리는 사람들이어야 한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세계화는 사회의 모든 분야에 변화를 요구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경제규모가 커지면서 국제교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국내 체류 외국인의 수도 함께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 따라 다문화사회에 관한 다양성이 인정되는 방향으로 의식의 전환이 필요한 부분으로 나의 변화의 시작이 다문화사회를 유지 하는 방법 일 수 있다. 여름방학 더위로 인해 열린 창문으로 들려오는 알 수 없는 언어에 짜증이 난 내 모습은 다양한 언어에 대한 이해와 배움이 부족해서 생긴 행동으로 인식되어 제2외국어로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언어에 관심을 갖고 배우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다. 언어는 소통의 기본으로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어 서로의 교감을 형성하는 데도 빠르게 작용하기 때문에 영어와 중국어에 한정된 범위를 벗어나서 태국. 필리핀 또는 베트남 등의 언어에 대한 관심과 습득은 다문화사회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공존과 소통의 구성 요소를 만족 할 수 있는 해답으로 보고 동남아시아의 다양한 언어에 대한 배움의 기회를 갖도록 해야겠다.

-끝-